

# Open Doors

2018. 5. Vol. 193

박해와 선교현장

인도 *India*

Yellow ID

TALK

@opendoors를 검색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하여 친구추가하세요.



Open Doors

Serving persecuted Christians worldwide



## 사탄의 전략 (7)

브라더 앤드류(오픈도어 설립자)

앞선 사탄의 전략들이 실패할 때, 사단은 우리가 권세를 사용하여 그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직접적인 공격을 가한다. 이 전략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겠지만, 우리나라 우리 가족의 신체나 정서에 공격을 가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나는 정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자주 이러한 공격을 목격하고 경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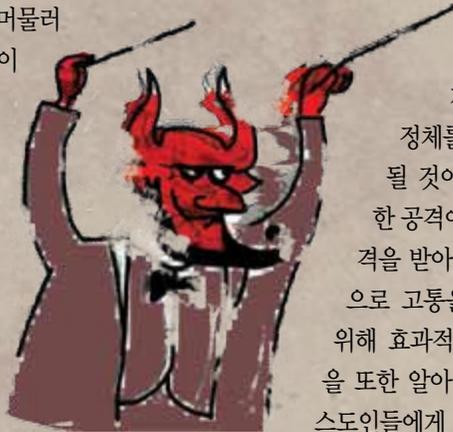
설교자의 아내로서 지금은 홀로된 한 여인이 자기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준 적이 있다. 그녀의 남편은 목사였는데, 수년 전 동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그 아내는 집에 머물러 있었다. 그가 가는 곳마다 큰 부흥이 일어났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설교하려고 일어서기 직전에 전보가 배달되었다. "집으로 돌아오라. 아내가 죽어간다." 그 목사는 노련한 영적 전쟁의 투사로서 사건의 진상을 파악했다. 몇 분 동안 그 일을 두고 기도한 후, 그는 "하나님은 나를 설교하라고 이곳으로 부르시고는 아내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내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아내를 위한 기도를 부탁하고 계획된 일정대로 모임을 마쳤다. 그가 집에 돌아갈 무렵 아내는 회복되었다.

그 여인은 미소를 지으며 그 이야기를 했다. "아시겠지만 남편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과 하시지 않을 일을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알고 있으면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내 남편은 다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을 수도 있는 그 사

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려는 것은 사단밖에 없다고 확신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곳에 머물러야 했어요. 사단에게 그런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없었던 거죠. 그는 사단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공격은 우리에게 격려가 될 수 있다. 원수가 더 이상 다른 간교한 수단을 쓸 수 없었으며 우리를 막으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체적이고 정서적인 면에서의 공격은 좌절감을 주며 쇠약하게 하고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 정체를 알지 못한다면 낙담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 이러한 공격을 받아서 신체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우리를 위해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을 또한 알아야 한다.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기도 동역자에게 전화하여 내 아픔을 놓고 기도로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원수가 얼마나 당황할까를 생각하면 대단히 위로가 된다.

사단의 전략에 대하여 할 말이 많지만, 이만하면 우리가 참전하고 있는 영적 전쟁을 확실히 알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내용을 다루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적을 어떻게 패배시킬 수 있을지 그 흥미진진한 내용을 살펴보자.



- 04 북한 선교 현장\_북한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기독교
- 06 박해와 선교 현장 인도-India
- 14 2018년 어린이 박해 지도 신청해주세요.
- 16 오픈도어 사역  
트라우마 치료: 인도(India)
- 18 오픈도어 뉴스  
박해뉴스: 팔레스타인(Palestine)
- 20 한국오픈도어 홈페이지 새단장
- 21 오픈도어 박해 퍼즐
- 22 300 기도용사 모집
- 23 2018년 오픈도어 연중 캠페인

OpenDoors 2018년 5월호 | 통권 193호 | 등록번호-성북 라 00066

공동대표\_김성태 교수(국제관계), 신현필 목사(개발사역)  
 이사장\_김성태 교수  
 부이사장\_김명재, 김영복 목사  
 이사회\_서창원, 노창영, 김영우, 박종배, 최홍규, 김성곤, 박윤환, 오정호, 이동현, 배춘섭, 양성찬, 김윤태 목사  
 사무총장\_이종만 목사  
 정보/행정/재정\_정규일, 오현정 간사  
 북한선교\_제나, 이다니엘, 조이, 루나 간사  
 발행처\_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857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9길 10 영성빌딩 4층  
 Tel. (02)596-3171 / 070-7522-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편집\_정규일 목사  
 오픈도어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후원 계좌 >  
 라틴아메리카: KEB하나은행 630-007636-461  
 중앙아시아: 우리은행 1005-201-884969  
 중동(걸프 포함): 우리은행 1005-201-884969  
 아프리카: 우리은행 1005-901-884982  
 아시아: 우리은행 1005-901-884970  
 북한: KB국민은행 772002-04-066312  
 성경교재 프로젝트: 우리은행 163-099071-02-101 \*예금주 김성태  
 순교자의 자녀와 미망인 돌봄: 신한은행 100-027-219169  
 가족 트라우마치료: 우리은행 1005-001-884989  
 동북부나이지리아 구호헌금: KEB하나은행 223-13-02233-5  
 희망의 선물: 신한은행 100-027-453994  
 오픈도어선교회: 신한은행 100-027-453994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 북한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기독교

— 최요한



“사람이 종교를 만든다. 종교가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 종교는 억압받는 피조물의 한숨이다. 심장 없는 세계의 심장이며, 영혼 없는 조건에서의 영혼이다. 그것은 인류의 아편이다.” 이 말은 1844년 칼 막스의 말이다. 이 말은 여전히 북한 이념의 핵심이며 북한의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에 대해 교육받는 핵심 내용이다. 내가 북한에서 자랄 때, 기독교는 악마고 십자가는 악마의 상징으로 믿었다.

모든 북한 아이들은 기독교는 악마이며 미제의 종교라고 배운다. 아이들이 배우는 것 중 하나는 김일성에 관한 것이다. 그는 전능한 힘이 있어서 한 손으로 무지개를 잡을 수 있었다고 배운다. 북한의 전설에 따르면 그의 아들 김정일은 ‘민족의 명산’인 백두산에서 태어났다(사실 그의 출생지는 러시아의 바트스코예(Vyatskoye)이며 그의 러시아 이름은 유라 김이다).

북한에서 모든 것들이 김씨 일가와 관련된다. 보육원에서 선생들은 점심시간에 지도자들에게 기도한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 그들에게 감사해야 한다. 지금 내가 깨닫고 보니 그것은 ‘주기도문’을 모방한 것이다. 아이들은 여전히 지도자들을 공경하도록 쇠뇌당한다. 만약 어린이가 김일성을 따른다면 그가 선물을 줄 거라는 이야기도 있다(산타 이야기의 모방). 북한은 오직 김씨 일가만을 우상화하며 ‘미 제국주의자들’과 ‘남한 어용분자’를 미워하게 만든다. 아이들은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배우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을 때 미움이 싹튼다. 미움이 있는 곳에 불신이 있기 마련이다. 이것이 북한에서 정말로 타인을 신뢰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중요한 이유다. 북한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의 의도나 다음 행동에 대해 추측하려고 애쓰면서 서로를 관찰한다.

북한의 적(미국인들 그리고 그들의 관점에서 모든 미국인들은 기독교인들이다)에 대한 증오를 고조시키기 위해 북한은 영화와 뮤지컬, 그림, 만화 등을 만드는데 이것들은 부정적 관점에서 미국인들과 기독교인들을 적대하는 것들이다. 그들은 적들이 어떻게 북한 사람들을 죽이고 탄압하는지를 그림이나 연극으로 보여준다. 다음은 북한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다.

“한 소년이 마을에서 어머니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산에서 빨감들을 나르고 있었다. 그가 선교사의 과수원을 지나치고 있을 때,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서 과수원의 사과가 바다에 떨어졌다. 소년이 사과 한 개를 주을 때, 그것을 선교사가 봤다. 그는 그 소년을 비웃으며 도둑이라고 몰았다. 그 남자는 어린 소년을 묶고 이마에 독성물질로 ‘도둑’이라는 썼다. 그 소년은 그 독성 때문에 죽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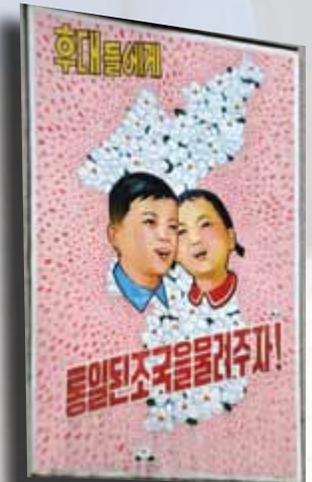
이 이야기는 내가 어렸을 때 항상 나를 두렵게 했다. 이 아동만화의 목적은 외국 선교사들에 대한 증오심을 키우는데 있다. 또한 이 만화는 공산당의 선전을 강조한다. “제국주의자들을 신뢰하지 마라. 이러한 적들은 항상 우리의 사회주의 세계를 정복하려는 목적이 있음을 생각하라.” 이러한 불신적인 만화로부터 북한 어린이들은 십자가를 악의 상징으로 여긴다. 북한은 교육을 위해 이러한 허위 선전영화와 만화들을 수없이 만들고 있다. 다른 예로 ‘최학신의 가족’이라는 영화가 있다. 대부분의 북한 사람은 이 가족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기억한다. 그 가족은 한국전쟁 동안 기독교 목사들을 신뢰했다. 그러나 결국 딸들은 목사들과 적 군인들에 의해 납치되었다. 가족 전체의 생명이 사라져 버렸다. 북한 아이들은 수 많은 거짓들에 둘러싸여 있다.

김씨 일가를 숭배하기 위해 북한에는 약 3만개에서 4만개의 기념비들이 있다. 어떤 것들은 크고, 어떤 것들은 작지만 모두 중요한 것들이다. 아이들은 이러한 기념비들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이자 명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거짓이 더 많아질수록, 그것들이 거짓으로 들어 날 때, 그 거짓에 대한 거부는 더욱 거세질 것이다. 진리는 영원히 묻혀 질 수 없다. 북한은 오랫동안 그것을 감추려고 노력한다. 나는 북한이 변할 것이라고 확실히 믿는다. 사실, 이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아이들은 더 이상 옛날의 아이들이 아니다. 아마도 어제의 북한 아이들은 단순히 세상에 있는 자유주의 정부들의 형태나 삶의 다른 방식들을 몰랐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아이들은 탈 북인들이 퍼뜨린 정보나 밀수입한 USB나 DVD 장치, 한국어로 방송되는 외국 방송들을 통해 진실을 발견할 수 있다. 더 많은 부모들이 믿음으로 나오며, 아이들이 충분히 성장했을 때 그들은 성경과 복음에 대해 듣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한다면, 언젠가 모든 북한 아이들이 삶과 진리에 대한 진실들과 하나님과 기독교에 대해 배울 수 있을 것이다. 하고 그분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쓰임 받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심각한 우울증세를 가졌던 다혈질의 성격이었는데, 이제 섬김과 인내를 가지고 주

님의 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남편과 그 가족과의 관계는 내가 주님을 믿은 이래로 놀랍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오지 않고 섬기러 왔노라” 나는 점점 더 그분을 닮아가, 섬기고 겸손해지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싶습니다. 저는 내 사랑과 관심으로 내 가족과 시어머니를 돌보고 있으며, 이것은 더 이상 그것은 저의 짐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아들이 자기 학교와 이웃에게 빛과 소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나는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성경교사가 되길 원합니다. 만약 내가 여행할 정도로 부자가 된다면, 이스라엘의 성지를 방문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때 죄인 된 존재로 잃어버린 자였지만,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망에서 내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그분을 더욱 알고 깊이 알아, 나를 구원하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를 이끌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 인도 *India*



- 종교: 힌두교(80.5%), 이슬람교(13.4%)
- 인구: 약 1,300,000,000명, 기독교인 64,000,000명(2017년 5월 기준)
- 박해정도: 극심함, 박해순위 11위
- 수도: 뉴델리 New Delhi
- 주 박해요소: 극심한 종교적 국수주의(Religious nationalism)

인도(India)는 2018년 세계박해지수(World Watch List, WWL)에서 박해 지수 81점으로 박해 순위 11위를 기록했다. 박해 지수가 작년에 비해 8점 상승한 것이다. 기독교에 대한 폭력은 극심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기독교인들의 삶에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기독교 압력 수위를 높이고 있다. 힌두교 극단주의가 박해의 최대 주체이며, 여기에 마오쩌둥 주의자들과 무슬림들이 합세하여 인도의 기독교 박해를 완성한다.

## 인도의 박해상황

### 1. 박해원인

**종교적 민족주의(Religious nationalism):** 힌두교 조직들은 보다 강경하고 공격성을 띤 모습으로 변화해 왔다. 그들은 인도가 힌두교의 전유물이며 기타 모든 종교를 인도에서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힌두교 극단주의는 인도 기독교 박해의 최대 요소로, 반항적이고 일상적이며 폭력성이 짙다. 또한 여타 형태의 종교적 민족주의가 박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라다크(Ladakh)에 위치한 힌두교 극단주의 세력, 마하라슈트라(Maharashtra)와 우타르프라데시(Uttar Pradesh) 지역의 신불교, 펀자브 주(Punjab)의 시크교 극단주의 등이 바로 그러한 예다.

### 2. 박해배경

인도에서 종교 민족주의의 가장 큰 박해 주체는 기독교 외의 타종교 지도자들과 폭력적인 종교 단체, 일반 시민, 그리고 정당이다. 그 다음으로 정부 관료들과 소수민족 지도자들이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하게 비롯되는 박해로 인해 기독교인들은 폭력을 경험한다. 대표적인 박해 집단은 힌두교 극단주의 집단들(RSS, SS, VHP)과 힌두교 성직자들에 의해 선동되는 일반 군중들이다. 이 두 집단은 모두 기독교인들을 공격하고 있는데, 현지 정부와 중앙 정부는 이를 전혀 제지하지 않는다(힌두교 극단주의 정당인 인도 인민당, BJP이 집권). 다시 말해 힌두교 극단주의자들이 처벌의 염려 없이 이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러 세기의 역사를 가진 카스트 제도는 인도 사회와 사람들의 정신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으며 근절시키기 가 거의 불가능하다. 카스트 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인간이 평등하다는 교리를 가르치는 종교들조차 사실상 카스트 제도에 의해 상당 부분 훼손되어 있다. 이슬람교와 시크교, 기독교가 바로 그 예다. 정부가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카스트의 하위 계층과 불가촉천민 계층(Dalits, Tribals)에 대한 학대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 관찰자들은 심지어 인도 사회가 인종차별

적인 성질을 띤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2014년 5월 이래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와 인도 인민당(BJP)이 인도에서 정권을 잡았다. 그 결과 이전 정권 시절에도 존재했던 힌두교 극단주의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들의 편협적이고 비수용적인 성격이 강해지면서 소수집단은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있지만 중앙 정부는 이러한 잔학 행위에 대해 어떠한 반대 입장도 내놓지 않으며 힌두교 극단주의가 활개를 치도록 방관하고 있다. 처벌의 부재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으며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적인 공격 사건의 발생 빈도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2014년 하반기부터 힌두교 극단주의는 무슬림들과 기독교인들을 다시 힌두교로 개종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홈커밍 캠페인'을 펼쳐 왔다. 수 차례 진행된 관련 행사를 통해 수백 명의 인도인들이 힌두교로 돌아갔다. 이 캠페인은 2015년과 2016년 초에 절정에 달했다. 힌두교 극단주의자들은 이슬람교와 기독교가 궁극적으로는 인도에서 몰아내야 할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무슬림들의 처지 또한 힌두교 극단주의 박해 아래에 있는 기독교인들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다.

### 3. 인도에서의 기독교 유형

**외국인 기독교회:** 인도에는 몇 개의 외국인 기독교 공동체가 있다. 그 가운데에는 서양인 공동체도 있고 난민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도 있다. 그 예로 뉴델리에 있는 아프가니스탄인들의 공동체를 들 수 있다. 이들이 힌두교 극단주의자들의 공격 대상이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들은 인도인들과 전혀 다른 인종이고, 인도 내에서 전도 활동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기독교회:** 로마 카톨릭, 정교회, 성공회 교회 등 전통 교회 공동체들은 인도에 이미 몇 세기 전부터 기독교인이 존재해 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기독교인들은 AD 3세기에 처음 인도에 들어왔고, 정교회 소속인 케랄라 마르 도마교회(Kerala Mar Thoma Church)도 이 시기에 세워졌다. 이 교회들은 전도 활동에 매우 소극적이기 때문에 성장 속도가 더디다. 그러나 이런 교회들마저도 때때로 힌두교 극단주의자들

에게 공격 당하여 교회와 예수상, 동굴 사원 및 십자가 조형물이 파손되는 일을 겪고는 한다.

힌두교배경의 기독교회: 힌두교에서 개종한 배경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인도 기독교 박해의 최대 표적이다. 이들은 거의 매일 같이 괴롭힘을 당하며 힌두교로 다시 개종하라는 압력을 받으며 살아간다. 이들이 신체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입원을 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는 일조차 비밀비재하다. 이들은 주로 교외에 거주하며, 가족과 친지, 공동체와 현지 힌두교 성직자들, 그리고 힌두교 극단주의자들로부터 오는 강한 압력을 견뎌 내야 한다.

비전통적인 기독교회: 침례교회, 복음주의교회 및 오순절교회의 기독교인들은 개종자들 다음으로 핍박을 받는다. 이들은 전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



이라 힌두교 극단주의자들의 두 번째 공격 목표로 간주되며 늘 공격 속에서 살아간다.

기타: 이슬람교, 시크교, 불교 등 기타 종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 역시 사회적으로 많은 압력을 경험하지만 그들의 수는 많지 않다. 이슬람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은 무슬림 인구 밀집 지역에서만 박해를 당한다.

#### 4. 각 영역에서의 박해 정도와 폭력

##### 인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박해의 유형:

- 전반적으로 인도의 기독교 박해는 매우 심각하다. 평균 기독교 박해지수는 작년 11.5점에서 올해 13.2점으로 상승했다.
- 박해가 가장 높게 나타난 곳은 14.7점을 획득한 국가영역이지만 삶의 다른 모든 영역에서도 매우 높게 나타난다. 종교를 기반으로 한 '종교적 민족주의'는 박해의 주요 요인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작용하고 있다.
- 폭력 점수는 작년 13.5점에서 올해 14.4점으로 상승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폭력은 최고수준에 이르렀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인도는 2018년도 기독교 박해국가들 통틀어 폭력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국가 중 하나다.



##### 개인영역

개종은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도 어긋난 행위이다. 반-개종법은 현재 여섯 개 주인 오릿(Oriya), 마디



야 프라데시(Madhya Pradesh), 차티스가르(Chhattisgarh), 히마찰 프라데(Himachal Pradesh), 자르칸(Jharkhand), 구자라(Gujarat)에서 시행되고 있다. 기독교인들이 구제활동을 한다는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 기독교인의 집을 경찰과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단체가 급습하곤 한다. 집안에서 성경이나 기독교 관련 물품들이 발견되면 모두 폐기처분 되거나 압수 당한다. 기독교인임이 밝혀지게 되면 위협에 처할 수 있고, SNS를 통해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되는 경우도 다반사다. 시골의 경우, 힌두교나 이슬람교 신앙이 아니면 복음주의 기독교인 또는 개종자로 간주 돼 공격의 대상이 된다. 예배와 관련해 개인적으로 모임을 갖는 것은 위험하다. 전국 각지에 포진돼 있는 정보기관 요원들은 기독교 활동을 감시하고 있다. 또한 극우 힌두교도들은 기독교 지도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디지털 감시장치로 관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기독교 박해는 시골이나 도심과 인접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와 동일한 사례가 델리(Delhi)와 뭄바이(Mumbai)와 같은 대도시에서도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됐다.

##### 가족영역

힌두교배경신자(HBBs)들과 그 자녀들 외에도 개종자들은 2011년도에 시행된 인구조사를 통해 힌두교도로 집계되었다. 힌두교 극우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에서 개신교 그리스도인들과 개종자들이 기독교식 결혼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동네뿐 아니라 작은 마을, 때때로 도시에서도 세례를 줄 때 끊임없이 방해 받고 있다. 특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영적 치유를 위한 모임에서 세례를 줄 때 더욱 그렇다. 인도 북부와 중부지방 기독교 개종자들의 장례식

은 극우 힌두교도들의 표적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의 경우, 힌두교도들이 힌두교 예법에 따라 고인을 화장하도록 가족들에게 강요하곤 한다. 기독교인들은 법에 의해 자녀를 입양할 수 없다. 기독교인 자녀들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요가와 수리야 나마스카(Surya Namaska: 태양 숭배)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 힌두교배경신자들을 포함해 기독교인들은 친 부모로부터 공격 당하는 경우도 있으며, 심지어 몇몇 기독교인들은 부모로부터 살해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건, 사고들은 절대 주요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다. 공동체영역

신앙 때문에 자행되고 있는 위협과 방해는 수많은 극우 힌두교도들의 다양한 종교적 혐오 운동과 힌두교로 회귀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격렬히 번지고 있다. 이러한 위협과 방해는 모든 기독교인들의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힌두교 공동체 안에서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지정된 힌두교의 의무나 예배에 참석해야만 한다. 기독교 신앙을 포기시키기 위해 사방에서 공격하는데, 매우 조직적으로 일어난다. 힌두교 근본주의자들은 기독교인들을 폭행함으로써 위협을 가하며, 힌두교 성직자들은 방송을 통해 힌두교 경전을 끊임없이 암송하고, 공동체 안에서 힌두교 예배를 집전함으로써 기독교인들을 세뇌시키고 있다. 사회적 차별과 때때로 조직화된 차별은 정부나 민간 기업의 기독교 직원들에게서 흔히 일어나고 있다. 기독교인들의 승진은 사소한 이유들로 거부된다. 이러한 제도적 부패는 기독교 박해를 더욱 악화시킨다.



### 국가영역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반-개종법 제정안 시행이 논의 중이라는 것이다. 기독교로 개종 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대부분 모든 지역에서 방해받게 된다. 기독교인들은 또한 정부당국으로부터 차별에 시달리기도 한다. 지역당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몇몇 기독교인들이 있긴 하지만 만약 그들의 상관이 힌두교 민족주의자라면 기독교인 관리들은 승진에서 제외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은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 힌두교 사회의 카스트 상류 계급이 90% 이상이 대중매체를 장악하고 있으며, 기독교인들에게 편향된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힌두교의 정치적-종교적 집단들은 개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목사들과 교회 활동가들 대부분에게 '신성모독' 죄를 뒤집어 씌우는 반면, 기독교 공동체에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은 거의 처벌받지 않는다.

### 교회영역

힌두교 집단들은 주기적으로 교회를 감시하고 방해한다. 시골이나 도시든지 간에 새롭게 교회를 건축할 때면 커다란 반대에 부딪치게 된다. 또 다른 문제는 낡고 오래된 교회 건물들은 관리들의 부정부패로 인해 수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교회 밖에서의 기독교 활동은 전도와 구제가 목적인 것으로 대부분 알려져 있다. 기독교인들을 공격할 때 가해자들은 교회 지도자들이나 목사들을 대상으로 삼으며, 다른 기독교인들에게 본보기의 기회로 삼고자 그들을 심하게 때린다. 시골에서, 심지어 도시에서조차도 성경이나 기독교 소책자를 나눠줄 때면 지역 내 힌두교 극우주의자들로부터 방해받는데, 이는 전도와 구제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다. 인도는 1960년대 후반 들어 종교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다. 또한 해외 선교사들의 입국을 허락하지 않음 뿐더러 국제 NGO 직원들과 기자들 역시 입국 비자를 받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공공기물 파손, 신성모독, 기독교 상징물에 대한 파괴 행위는 주로 시골이나 도시에 인접한 지역에서 발생한다. 목사들과 선교사들이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경찰들로부터 검문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 폭력

인도에서 일어나는 박해는 극도로 폭력적이며, 작년 대비 0.9점 증가했다. 보고된 사건, 사고 건수는 매우 높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수많은 사건들이 대중매체에 보고되지 않았으며, 연구자들에 의해 기록되지 못했다. 2018년 기독교박해지수 보고 기간(2016년 11월1일~2017년 10월 31일까지) 내 적어도 8명의 기독교인들이 신앙으로 인해 살해당했으며, 최소 34곳의 교회가 공격받고 파괴되었다. 또한 고아(Goa) 지역 내 무덤 100곳 이상이 훼손되기도 했으며, 600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인도에 억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 협력단체에서 보내준 정보에 의하면 24,000명에 달하는 기독교인들이 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적어도 기독교인 14 가구 또는 사유지가 공격받고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최소 336명에 달하는 기독교인들이 가정에서 쫓겨났다. 실질적인 사건, 사고 건수는 앞서 나열된 것보다 훨씬 더 높을 것이다.

### 폭력 사건의 사례들:

- 2017년 7월 15일 술탄 마시(Sultan Masih) 목사는 펀자브(Punjab)주, 루디아나(Ludhiana)에 위치한 교회 밖에서 차량에서 쏜 총격에 맞아 숨졌다.
- 2017년 3월 15일 미국에 기반을 둔 기독교 구호단체 컴패션은 계속되는 인도 정부의 규제 강화로 48년

만에 사역을 접어야 했다. 인도 내무부는 해외 자금을 원조받는 컴패션의 인도 협력단체들의 자금이 정부에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고발했다. 극힌두정당(BJP)이 2014년 세력을 얻은 이후부터 힌두교 집단은 기독교 자선단체들이 힌두교 신자들을 개종시키기 위해 구제 활동을 한다며 그들을 고발하고 있다.

- 2017년 5월 10일 우타르 프라데시(Uttar Pradesh)주, 살렘푸르(Salemipur) 마을의 기독교인 가정에서 목사 6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기독교인 가정에는 대략 250명의 기독교인들이 모여 영적 치유를 위한 기도회가 열렸다. 체포된 목사들은 비-정통 교회에 소속돼 있었으며, 치안 방해죄, 종교간 적대심 조장죄, 폭동 선도 시도죄 혐의로 기소됐다.

## 5. 성별에 따른 박해의 특징

### 여성

박해 받는 기독교 여성과 소녀들은 성추행과 강간, 신체적/언어적 폭력에 시달린다. 살인이 시도됐고, 힌두교 예배에 참석할 것을 강요 받았다. 신앙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격리되거나 가정/마을로부터 추방되기도 한다. 인도는 종교적 다양성과 함께 원칙적으로 종교, 성별, 인종 또는 카스트 계급과 상관없이 모든 시민은 법적으로 평등하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는 민주주의 사회이다. 그러나 현실은 사뭇 다르다. 가부장제의 특징과 함께 사회의 연약한 계층을 착취하는 오랜 전통인 또 다른 법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즈랑 달(Bajrang Dal)은 힌두교 극우단체인 비샤 힌두 파리아드(Vishwa Hindu Parishad)의 청년단체로, "bahu lao-beti bachao" 운동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무슬림이나 기독교 여성들과 결혼하는 힌두교 청년들 보호하자"는 뜻인 동시에 힌두교 가

정들의 관심을 끌 요량으로 "무슬림과 기독교 청년들과 교제하거나, 결혼하려는 힌두교 여성들을 보호하자"는 구호이기도 하다.

### 남성

박해 받는 기독교 남성과 소년들은 죽음에 이를 정도의 잔혹한 구타와 법적 고소, 혐의를 씌워 체포하거나 사회적 차별에 시달린다. 남성들은 또한 가정에서 쫓겨나거나 사회적으로 배척되고 개종자들로 색출 당하며, 식수 공급이 중단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압박해 무고죄목을 씌우기 하며, 재산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다.

## 인도(India)의 상황을 이해하는 핵심 요소들

### 종교적 상황

2017년 5월 세계 기독교 데이터베이스(WCD)에 의하면, 인도의 인구는 약 13억 4천만 명으로 중국 다음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에 해당한다. 제일 큰 종교는 인구의 72.5% 믿는 힌두교로, 기원전 500년부터 300년 사이 성장해왔고 그 후 수세기 동안 인도를 지배해 오고 있다. 1990년초부터 힌두교 과격분자들의 세력이 확산되었다.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도를 헌법에서 명시된 비종교 국가에서 힌두교가 국교인 나라로 바꾸는 것이다. 수년간, 과격분자들은 종교적으로 소수파인 비 힌두교신자들을 대상으로 수많은 난폭한 공격을 가해왔다. 지방과 주, 그리고 당국에선 이러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

다. 2016년 8월 인도복음주의연합회의 보고에 따르면 그 해 상반기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사건이 134건 발생했다. 모디 행정부는 이에 대한 공개발언을 거절했고 공격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유사 사건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인도에서 두 번째로 큰 종교는 이슬람으로 인구의 14.4%가 믿고 있다. 14.4% 별로 크지 않은 숫자로 보일 수 있지만, 인도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무슬림 인구가 많은 나라로 무슬림신자가 가장 많은 인도네시아도 사실 인도보다 무슬림 인구가 조금 더 많을 뿐이다. 결국 무슬림들에게 있어 인도가 이웃나라인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보다 이슬람의 고향이 되는 셈이다. 기독교는 인도에서 세 번째로 큰 종교로 기독교 신자는 인구의 4.8% 해당된다. 인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독교 집단은 개종자가 포함된 비전통적인 기독교 공동체다.

정치적 상황

인도는 복잡한 정치적 상황을 띠고 있다. 특히 나라의 외교, 군대와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수도 뉴델리의 연방행정부다. 인도는 29개의 주와 7개의 중앙정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연방 직할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도헌법은 인도를 비종교 국가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힌두교 과격분자들은 힌두교를 국가종교로 선포하고 이것을 바꾸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그들은 또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종을 반대하는 입법제정을



원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의회 2/3의 동의가 필요하다. 종교적 자유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으나, 각 주 별로 종교에 대한 주 자체 정책을 따로 정해놓고 있다. 이중 5개의 주(오리사, 히마찰 프라데시, 구자라트, 마디아 프라데시, 차티스가르주)는 다른 주와 달리 반개종법을 시행하고 있다. 2014년 5월부터 중앙정부는 집권여당인 인도국민당(BJP)이 지배하고 있다. 전국에 걸쳐 종교 소수 종족을 공격하는 힌두교 과격분자들의 잔악한 행위가 처벌받지 않는 상황이 증가하면서 기독교인들은 점점 더 일상의 공격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 지방 경찰관은 부패되었다는 좋지 못한 평판을 가지고 있다. 인도국민당이 지방자치를 형성한 많은 지역에서 경찰관들은 중립적이지 않고 종종 힌두교 강경론자들의 편을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자들이 항의를 제기하려 할 때마다 그들은 자주 거절한다. 또한 그들은 신자들을 가두고 폭행하는 잔인성으로도 유명하다.

사회 경제적 상황

1941년 독립 후 수십 년간 개발도상국으로 간주되곤 했으나 1990년에 도입한 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해 현재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비록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경제위기가 있었지만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국가 중 하나에 속한다. 국제통화기금(IMF)에 의하면, 2015년 10월 기준 인도 경제는 가시적 가치로 볼 때 2조 1천 8백 20억 달러에 해당되는데 이는 시장환율 가치로 볼 때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큰 경제 규모다. 하지만 새로운 부는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고 있다. 부유층과 극빈자 계층 사이의 격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빈곤율은 30%로 여전히 높다. 기독교인의 교육 수준은 낮고 하층사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불리한 위치에 있는 편이다. 관료주의와 부패는 인도 전 지역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교회가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거나, 개보수 하려고 할 때 불필요한 요식행위와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 이러한 방해로 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뇌물상납이다. 수입이 낮은 하급 공무원의 상당수가 부패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부수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도의 신자들은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다. 인도에서 해외로부터 재정원조를 받는 일은 매우 어렵다. 모든 원조와 후원은 세관에 보고되기 때문에 기독교 비정부기관의 사역은 쉽지 않다. 기독교인의 대다수가 사회의 하층에 속해있고 가난한 삶을 살고 있다. 그들은 일상의 차별을 비롯해 빈곤, 문맹, 부족한 공공의료, 영양실조로 인해 고통 받고 있기 때문에 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외국 원조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정부의 제한으로 인해 이러한 원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인도사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카스트 제도로 수세기 동안 인도사회에 뿌리 박힌 계층사회 제도다. 카스트제도가 인도의 교회 안에도 스며들고 있다는 것은 놀랄만한 사실이다. 대다수의 신자가 하층 또는 달리트(Dalits) 출신이다. 불가촉천민이라는 희망 없는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힌두에서 개종한 그들이 교회 안에도 같은 장애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상당수가 실망한다. 교회 안의 계급제도 철폐는 기독교가 직면한 주요 해결과제다.

인도의 신자들이 직면한 두 번째 문제는 낙살라이트(Naxalites)로 알려진 모택동주의자들의 존재다. 낙살라이트는 냉전시대의 유물로, 급진적인 공산 반군들이 인도의 가장 가난한 지역을 주요기지로 삼고 있다. 낙살라이트의 통제아래 있는 신자들은 항상 감시를 당하며 믿음생활을 공개적으로 할 수 없다. 만약 각각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들을 따로 끌어들여 마을의 특별회의의 시간

에 본보기로 삼는데 이 경우 심한 매질로 끝날 수 있으나 간혹 공개 처형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 인도가 직면한 또 하나의 사회이슈는 물리적 폭력의 심각한 수준과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여기는 분위기다. 친족에 의한 부정한 여인 살해, 독극물 투척, 폭동에 의한 구타, 처형, 그 외 많은 잔악한 행위들이 매일 나라 전역에 걸쳐 발생하고 있다. 매년 발표되는 다수의 폭력사건들이 증명하듯이 신자들은 종종 이러한 사건의 희생자가 되곤 한다. 인도에서 여자와 소녀들은 여전히 천대 받으며 열등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그들은 교육을 받지 못해 문맹률이 낮다 보니 남아 선호의 사회 분위기로 인해 여아라는 이유로 낙태 또는 살해를 당하기도 한다. 따라서 인도의 여성인구는 남성에 비해 3천 5백만명 정도 적으며, 매일 여성을 상대로 한 강간 사건이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를 돕거나 가해자가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일에 진정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1 북한 23,400,000명 200,000명의 기독교인  
 2 아프가니스탄 34,200,000명 수천명의 기독교인  
 3 소말리아 11,400,000명 수백명의 기독교인  
 4 수단 42,200,000명 7,000,000명의 기독교인  
 5 파키스탄 197,000,000명 3,900,000명의 기독교인  
 6 에리트레아 5,500,000명 2,500,000명의 기독교인  
 7 리비아 6,400,000명 41,000명의 기독교인  
 8 이라크 39,100,000명 250,000명의 기독교인  
 9 예멘 아랍 공화국 26,310,000명 수천명의 기독교인  
 10 이란 81,000,000명 800,000명의 기독교인  
 11 인도 1,300,000,000명 64,000,000명의 기독교인  
 12 사우디아라비아 32,700,000명 1,400,000명의 기독교인  
 13 필리핀 107,000,000명 9,000,000명의 기독교인  
 14 나이지리아 192,000,000명 89,000,000명의 기독교인



15 시리아 19,000,000명 194,000명의 기독교인  
 16 우즈베키스탄 27,000,000명 500,000명의 기독교인  
 17 이집트 91,000,000명 1,500,000명의 기독교인  
 18 베트남 79,400,000명 9,400,000명의 기독교인  
 19 루르크 에미라이트 5,300,000명 70,000명의 기독교인  
 20 라오스 7,000,000명 225,000명의 기독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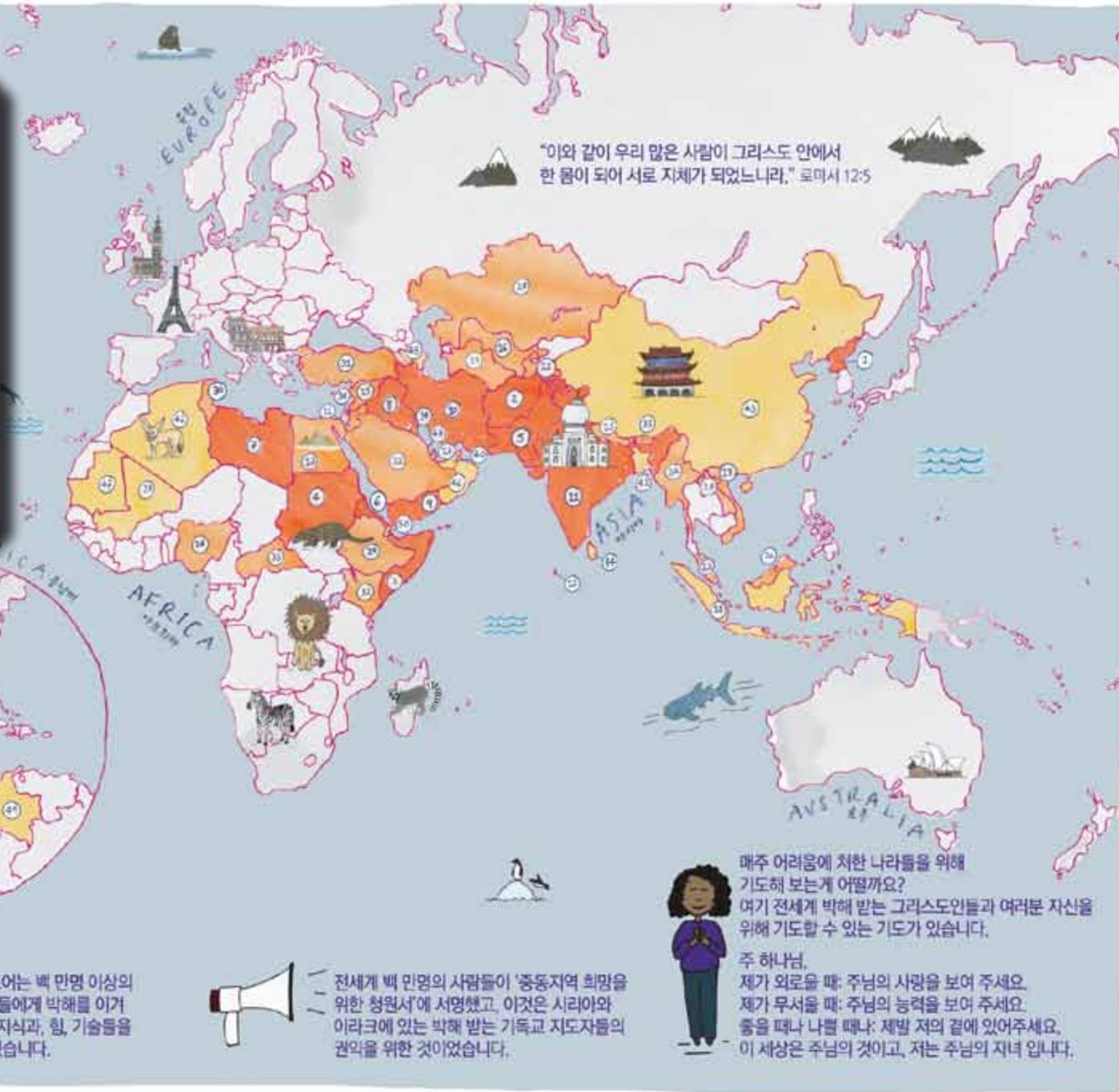


21 오만 2,900,000명 129,000명의 기독교인  
 22 튀르키예 82,300,000명 42,300,000명의 기독교인  
 23 캄보디아 16,000,000명 8,000,000명의 기독교인  
 24 말레이시아 2,900,000명 2,900,000명의 기독교인  
 25 미얀마 54,000,000명 4,600,000명의 기독교인  
 26 네팔 24,200,000명 1,500,000명의 기독교인



27 아랍 에미리트 10,400,000명 1,000,000명의 기독교인  
 28 멕시코 132,000,000명 119,000,000명의 기독교인  
 29 인도네시아 공화국 262,500,000명 31,900,000명의 기독교인  
 30 브라질 217,700,000명 413,000,000명의 기독교인  
 31 팔레스타인 영토 4,500,000명 67,000명의 기독교인  
 32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5,100,000명 3,890,000명의 기독교인  
 33 쿠웨이트 4,700,000명 425,000명의 기독교인  
 34 부탄 793,000명 20,000명의 기독교인  
 35 케냐 48,500,000명 39,400,000명의 기독교인  
 36 터키 80,400,000명 190,000,000명의 기독교인  
 37 튀니지 11,500,000명 23,800,000명의 기독교인  
 38 에티오피아 140,300,000명 67,000,000명의 기독교인  
 39 카자흐스탄 18,000,000명 4,600,000명의 기독교인  
 40 카타르 2,300,000명 212,000명의 기독교인  
 41 브루나이 434,000명 94,800명의 기독교인

**2018년 박해지도를 신청해주세요.**  
 전화: 02)596-3171  
 메일: odsk@opendoors.or.kr  
 필요한 사이즈와 수량을 말씀해 주세요.  
 국2절, A4사이즈



매년 오픈도어는 성경책과 기독교 문서를 접하기 어려운 나라들에 2백 5십만 권 이상의 성경책과 기독교 문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매년 오픈도어는 집과 가족들을 잃은 백 만명의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음식, 물, 집, 그리고 약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오픈도어는 백 만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를 이겨 낼 수 있는 지식과, 힘, 기술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백 만명의 사람들이 '중동지역 희망을 위한 청원서'에 서명했고, 이것은 시리아와 이라크에 있는 박해 받는 기독교 지도자들의 권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매주 어려움에 처한 나라들을 위해 기도해 보는게 어떻까요?  
 여기 전세계 박해 받는 그리스도인들과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 하나님,  
 제가 외로울 때: 주님의 사랑을 보여 주세요.  
 제가 무서울 때: 주님의 능력을 보여 주세요.  
 통을 때나 나쁠 때나: 제발 저의 곁에 있어주세요.  
 이 세상은 주님의 것이고, 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반향해 세미나가 나를 더욱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Q** 오픈도어 현장 사역자들이 인도에서 열린 박해 세미나를 참관하에 참가하였다. 세미나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이 세미나에서 오픈도어 사역자들은 50대의 쿠살(Khushal) 목사를 만났다. 쿠살 목사는 인도의 외진한 마을에서 사역하고 있고, 그곳은 인도에서 믿음으로 인한 박해가 극심한 곳이다. 특히 그는 폭도들에 의한 심한 구타와 정신적인 모욕을 받았다. 또한 힌두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거라는 위협을 받아왔다. 경찰들은 이러한 박해에 늦장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한 번은 심한 구타를 당한 뒤 늦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경찰도 합세하여 쿠살 목사를 박해했다. 경찰은 많은 심문 뒤, 그가 돈을 이용해 사람들에게 기독교인이 되도록 유인했다는 것으로 고발하였

다. 한 번은 2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쿠살 목사의 집을 둘러싸고 그를 잡아 끌어내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집에서 500미터 남짓 떨어진 힌두교 사찰로 데리고 간 뒤에 사람들은 쿠살 목사를 밀치면서 우상 앞에 절하기를 강요하였다. 하지만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우상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고 한다. 인도의 중부 출신의 이 목사는 그가 가진 믿음과 목사로서 감당했던 사역 때문에 겪었던 고통스러웠던 고난에 대해서 말해주었다. 힌두교 극단주의자들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계속적으로 쿠살 목사를 박해했다. 많은 시간 쿠살 목사는 이들로부터 위협을 받아왔고, 그들은 결국 잔인하게 쿠살 목사를 공격했다. 그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에 대해 나누면서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폭도들은 쿠살 목사를 발로 차고 소

리치며 무자비하게 때렸다. 그리고 순진한 힌두교인을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일을 그만하라고 소리쳤다. 어느순간이 지나자 매질로 인한 고통은 온몸의 마비로 인해 더 이상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다. 그의 말에 의하면 구타 뒤에 이어질 일들이 너무도 순간 두려웠다고 한다. 구타와 모욕은 두 시간이 넘도록 계속 이어졌으며 결국 경찰이 와서야 쿠살 목사는 경찰서로 가게 되었다. 그는 눈썹 위에 깊게 패인 자국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갔다. 처음에 경찰서로 간 쿠살 목사는 그들이 자기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경찰들은 몇 사람이나 기독교로 개종 시키려 했으며 심문하기 시작하였다. 쿠살 목사의 마음은 무너졌고 본인은 그저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을 뿐이며 오히려 사람들이 기적을 보았을 때 그들 스스로 기독교로 개종했음을 말했지만 아무도 이 사실을 믿지 않았다. 경찰서에서 강도 높은 심문은 계속 되었고, 결국 경찰서에서 쿠살에게 내려진 결론은 사람들을 속여 기독교로 개종 시키려 하게 했다는 것과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도록 한 요주의 인물이었다.

그렇지만 다음날 쿠살 목사는 많은 지역교회 리더들의 항의와 그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힘쓴 결과 경찰서에서 나올 수 있었다. 경찰서에서 나와서 집에 올 수 있다는 것이 너무도 감사했지만 그의 내면에는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그와 그의 가족을 괴롭혔다. 가족들은 그에게 사역을 계속 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했고, 집안에서만 사역을 하도록 권유하였다. 폭도들에게 박해를 받고 난 일주일 뒤에 그는 한 다른 목사를 통해서 박해 극복 세미나에 대해서 듣게 되었다. 처음 이 세미나에 대해서 듣고 그는 가족들을 뒤로 하고 간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결국 세미나에 가기로 결정하였다. 세미나에 참석하고 난 뒤 쿠살 목사는 내면의 치유를 받게 되었고, 조금씩 회복을 맛보았다. 그는 더 이상 가족들뿐 아니라 이 땅의 어떤 위험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않게 되었다. 왜냐하면 박해 세미나에 참여한 참가자들이 그 동안 그들이 받았던 구타, 몇 년 넘게 이어지는 감옥 생활, 그리고 믿음으로 인해 죽음까지 이르렀던 그들의 간증을 통해 그의 마음이 회복된 것이다. 그리고 사진을 통해 박해로 죽음까지 이

어진 가족들의 파괴된 집 사진을 보면서 자신이 그들 보다는 훨씬 덜 고통을 받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세미나 동안 쿠살 목사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그의 보호하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 느낌은 하나님께서 이 세미나로 의도적으로 이끄셨음을 확인하는 것이었고, 그는 이곳에서 본인의 간증과 고민들을 함께 나눌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 기도해주었고 그러면서 그는 새 사람이 되어감을 알게 되었다. 더 성숙되고 성장하는 시간이었다.

세미나를 마친 뒤에 그는 집에 돌아가서 세미나 가운데 나누었던 많은 박해 이야기들과 본인이 배운 것들에 대해서 나누자 쿠살의 아내는 그의 변한 모습을 보고 놀랐으며 무엇보다 그의 아내가 큰 위로를 얻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의 교회의 네 가정은 믿음을 저버리고 떠났다고 한다. 하지만 남은 성도들의 믿음은 더 굳건하여졌다고 한다. 쿠살 목사는 여전히 그를 박해한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다.





## 증오를 넘어 사랑, 용서, 정의를 심어준 한 팔레스타인 그리스도인

베들레헴의 한 그리스천 학교의 교장인 조지사데(George Saadeh)의 딸은 12살이 되던 해에 이스라엘 군인이 쏜 총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그는 증오에 휩싸이지 않기로 마음을 굳혔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를 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조지사데의 교무실은 보통 누군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불러오는 곳이기도 하지만, 셰퍼드 고등학교(Shepherd's High School)의 교장으로서 오픈도어와 함께 처벌이 아닌 사랑과 용서에 관해 이야기하는 공간이 되었다. 이 그리스천 학교는 팔레스타인에서는 가장 큰 교회인 그리스 정통 정교회의 소속이다. 하지만 무슬림이든 그리스천이든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다. “우리는 모든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필수적인 요소로서 학생들이 그리스천 영성을 가지도록 만들어나가

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우리는 그리스천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다른 사람들과 너와의 관계를 구분 짓는 것은 무엇일까?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 항상 정직해야 한다. 스포츠 경기를 할 때도 공평해야 한다. 너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존경심을 가지도록 하여라.’ 가르칩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들 배경으로 한 가르침입니다.” 조지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초의 선생님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이 설교한 것을 몸소 삶으로 보여주셨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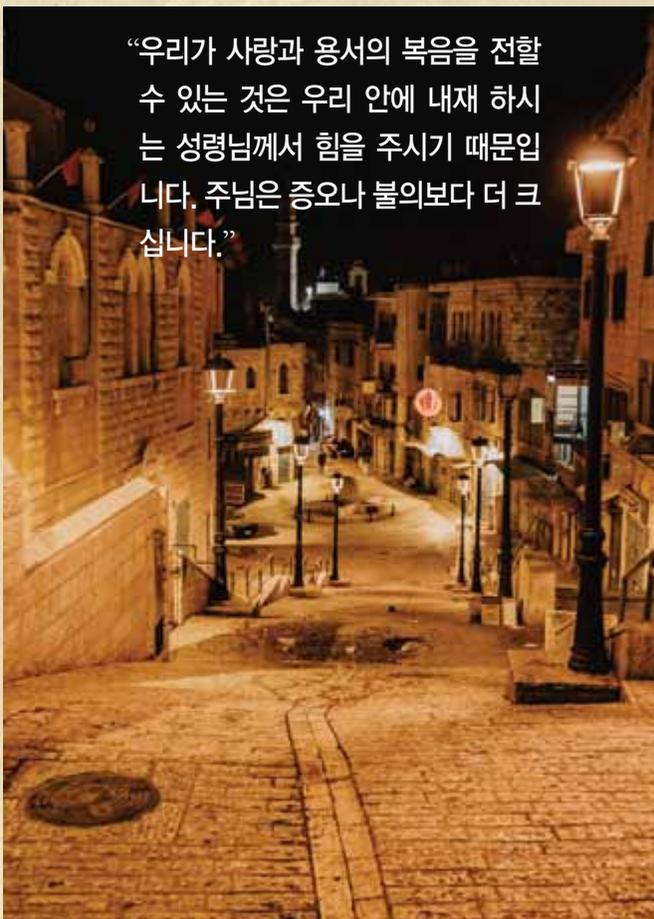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이 그리스천에게 주는 고통

조지의 이야기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으로 인해 핍박을 받거나 고통 가운데 있는 팔레스타인 그리스천들의 삶을 대변해준다. 극심한 분쟁지역인 서안지구에서 살고 있는 대다수의 팔레스타인 그리스천들이 이스라엘 군의 삼엄한 경계 가운데 숨죽이며 살고 있다. 그간 있었던 많은 유혈사태가 이미 대다수의 팔레스타인 그리스천들을 떠나게 만들었다. “무슬림들과 유대인들의 큰 충돌이 있는 와중에 그리스천들은 그 중간에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조지 자신도 미국에서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한 후 미국으로 완전히 이주할 기회가 있었다. “제가 미국에 있었다면 여러 가지 좋은 기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검열도 피할 수 있었을 것이고 최루탄 가스냄새도 맡지 않을 수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게 나와 가족의 최선의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곳이 나의 고국이기 때문에 남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희망과 믿음을 지키고 싶었거든요.”

## 내 사랑스러운 딸

그의 신앙의 시련은 2003년도에 찾아왔다. 제2차 인티파다(Second Intifada)라고 불리는 팔레스타인 민중봉기가 있었을 때 이스라엘 군인들이 조지와 그의 가족이 타고 있는 차를 오인 사격하여 그의 12살 딸은 즉사하였고 그와 부인과 남은 한 명의 딸은 큰 부상을 입는 사고를 당하였다. “내 딸은 그 당시 겨우 12살이었습니다. 몇 초간의 짧은 순간 안에 그녀의 모든 삶은 빼앗겼습니다.” 부상이 심각했기 때문에 조지는 딸 크리스티나(Christina)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었다.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하며 그는 눈물을 머금은 채 이렇게 이야기 했다. “그 당시 삶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극심한 고통과 절망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사랑과 용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증오나 불의보다 더 크십니다.” 사건 후 조지는 민족 간의 충돌로 자식을 잃은 이스라엘인과 팔레스타인 가족들의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다. “우리는 자식을 잃은 슬픔 가운데 상충

에 있는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를 돕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인 친구들도 많이 사귀게 되었습니다.” 딸의 죽음 이후 조지는 지속적으로 인내, 평화, 용서와 정의에 관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비단 팔레스타인 그리스천들뿐 아니라 해외에 있는 그리스천들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의 복음에는 고개를 가우뚱 거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복음의 메시지가 이곳에서 일어나는 갈등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팔레스타인 지지자가 되지도 이스라엘 지지자가 되지도 말고 오직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조지는 모든 그리스천들에게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진리에 대해 기독교인들이 행동하지 않을 때 기독교의 가치는 어디에 있던 말입니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하시기 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과 용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증오나 불의보다 더 크십니다.”

한국오픈도어가 새롭게 **홈페이지**를 단장하였습니다.  
 접속해 둘러 보시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www.opendoors.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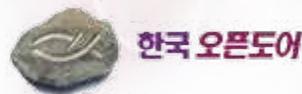
다음, 네이버, 구글에서 **‘한국오픈도어’** 로 검색

##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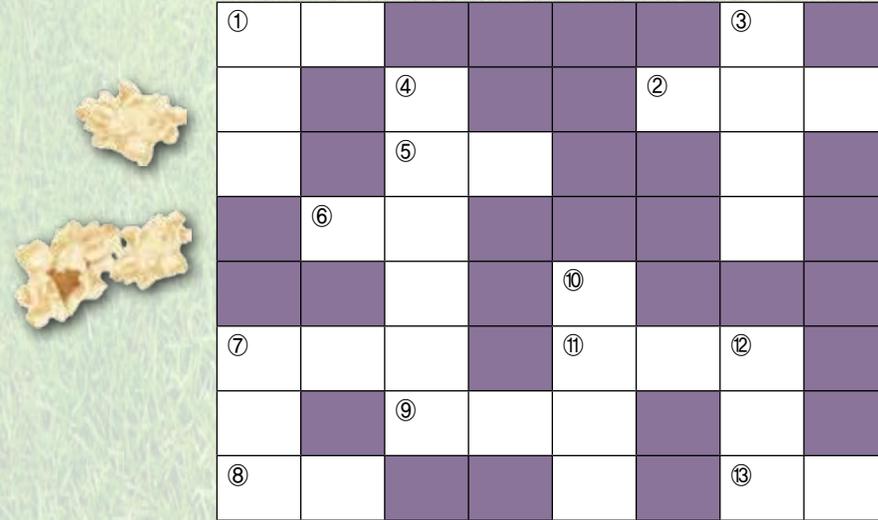
작년 한해 동안 한국오픈도어선교회를 통해 보여주신 후원자님들의 사랑에 감사 드립니다.  
 올해도 후원자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한국오픈도어선교회가 되겠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후원자님들께서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 596-3171

메일: [odsk@opendoors.or.kr](mailto:odsk@opendoors.or.kr)



## 오픈도어 박해 퍼즐



### ● 가로열쇠

- ① “.....너의 ○○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창 12:1)”
- ② “○○○가.....민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십자가에 못박히게 남겨주니라(마 27:24~26)”
- ⑤ 사사로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훈련시켰던 스승(삼상 3:8~10).
- ⑥ ‘쓰다’는 뜻을 지닌 지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흉해를 건넌 후 3일길을 지나 발견한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던 곳(출 15:22~23).
- ⑧ 히스기야 왕의 외할아버지이다.(왕 하 18:1~2)
- ⑦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예수님의 친구라고 불리었으며, 예수님에 의해 살림 받은 사람(요 11:43~44).
- ⑧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내려준 음식, 갓짜 같이 희고 맛있는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출 16:31).
- ⑨ ‘다섯째 달 다섯째 지휘관은 ○○○사람 삼훗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대상 27:8)’
- ⑩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으로, 고향으로 귀환하던 아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으나 그의 생명이 보전되었다는 의미에서 고백한 곳(창 32:30)
- ⑬ 이삭의 둘째 아들로, 이삭의 축복으로 인해 그의 형인 에서를 피해 밧단아람으로 도망친 후, 하나님의 뜻대로 고향에 돌아온 사람(창 31:11~13)

### ● 세로열쇠

- ① 악이 가득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소돔과 함께 멸망시키신 곳 (창 19:24).
- ③ 바울의 동역자로서, 디모데와 함께 마게도냐로 보내어진 사람 (행 19:22).
- ④ 하갈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셈 (16:14).
- ⑦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 문둥병자였다. 엘리사의 말에 그대로 행함으로써 치유받고 하나님을 찬양했다(왕하 5:14~15).
- ⑩ 유다 지방의 한 성읍으로 ‘베들레헴 ○○○○’로도 알려져 있다(미 5:2).
- ⑫ ‘내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선지자로, 디셉 사람이라 불렸다(왕상17:1).

### ▣ 지난호 정답 ▣

사	무	엘		게	르	숨
렘		론		데		
다		벤	바	세	스	
		하				
요	하	난		스	가	라
	모		브			드
	나	다	나	엘		니
			야		브	니
					엘	

### ▣ 지난달 당첨자 ▣

허민주, 조영환, 김진화 님 (축하드립니다!)

메일로 정답과 상품을 받으실 **휴대폰 번호**를 적어 응모하세요.  
 3명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odsk@opendoors.or.kr](mailto:odsk@opendoors.or.kr) (2018년 5월 10일까지)

# 300기도 용사 모집



오픈도어가 복음을 들고 찾아 가는 곳은 전 세계의 핍박 받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화란 본부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다양한 긴급 기도 제목들이 올라 옵니다. 전 세계의 예수 믿는 자들에게 긴급히 기도 부탁을 하는 간절한 내용들이 배달됩니다. 이에 우리 한국 오픈도어에서도 SNS를 통하여 본부에서 올라 오는 긴급 기도 제목들을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300명의 기도 용사들을 모집합니다. 기도 용사들은 수시로 올라 오는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골방에 들어 가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눈뜨고 간절한 맘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암흑같은 일제 강점기와 6.25전쟁 때도 전 세계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정이 알려져 기도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로 우리가 진 빛을 갠아야 할 때입니다.

## 동참해 주십시오.

동참하시는 방법은 아래의 정보를 오픈도어 메일(odsk@opendoors.co.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화(010-7573-3171/엘리사 간사)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주신 정보는 이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1. 이름:
2. 연락처:
3. 이메일주소:
4. 카카오톡 or 페이스북 주소:
5. 주거지역: ex) 서울, 경기, 경남, 전남 등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이 나라와, 교회와 세계를 변화시키고,  
주의 뜻이 실현됨을 믿고 많이 동참해 주세요



# 2018년 오픈도어 연주 캠페인

## 아프리카 지역 어린이를 위한 주일학교 교재 개발

아프리카 지역 교회에 다니는 어린이용 성경 공부 교재를 개발합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목표 금액: 800만원 ■ 은행계좌: 우리은행 161-099071-02-101

## 아시아 지역 순교자 자녀와 미망인 돌봄 사업

아시아 지역에서 남편을 잃고 아버지를 잃은 자녀들을 돌봅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순교한 분들의 가족을 돕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목표 금액: 3,500만원 ■ 은행계좌: 신한은행 100-027-219169

## 중동 지역 가족 트라우마 치유 사업

중동 지역에서 전쟁과 내전으로 상처 입은 기독교인 가족들을 치유합니다. 중동 지역에서 겪은 가족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목표 금액: 1,800만원 ■ 은행계좌: 우리은행 1005-001-884989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9길 10, 영성빌딩 4층  
전화번호: 02-596-3171  
팩스번호: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co.kr

# 오직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한 나의 희망의 선물 2018

우리의 작은 실천이 한 사람의 희망이길 바라며...

성경 훈련	선물 1	아프리카의 박해 국가 어린이들에게 성경 전달	×	5,000원	=	원
	선물 2	시리아의 제자훈련 프로그램	×	70,000원	=	원
	선물 3	중동의 목회자 훈련 사역	×	150,000원	=	원
생존	선물 4	위험에 처한 무슬림 국가의 성도들을 위한 안전교육 제공	×	100,000원	=	원
	선물 5	탈북자들을 위한 안전교육 제공	×	50,000원	=	원
	선물 6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상담 사역	×	80,000원	=	원
여성	선물 7	박해의 최전선에 있는 여성들을 위한 영육간의 돌봄 제공	×	30,000원	=	원
	선물 8	무슬림 국가에서 박해받는 크리스천 어린이들에게 신앙 교육	×	80,000원	=	원
어린이	선물 9	중앙아시아의 박해받는 크리스천 어린이들에게 신앙 교육	×	20,000원	=	원
	선물 10	박해 최상위 10개 국가의 어린이들에게 기독교 서적 전달	×	10,000원	=	원
난민	선물 11	중동의 크리스천 난민들에게 대피소와 구호품 제공	×	100,000원	=	원
	선물 12	한 사람의 난민의 훈련과 의료적 돌봄	×	40,000원	=	원
총 계					=	원

**참여안내** 보내주시는 헌금은 후원자분들의 뜻에 따라 각 선교지에 보내어집니다.

1. 전달하려는 선물에 표시하고 총 선물 금액을 계산합니다.
2. 총 선물 금액을 오픈도어 캠페인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신한은행] 100-027-453994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3. 전화 (02-596-3171) 또는 이메일 (odsk@opendoors.or.kr)로 선물 신청 내역을 알려주세요.

